

2023년 7월

Vol.39

문화서구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INCHEON SEOGU CULTURAL CENTER

Contents

03 지난 행사 자세히 보기

04 인천서구문화원 이모저모

06 문화칼럼

- 서곶옹기,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다 _ 시인 · 인천서구문화원 부원장 허우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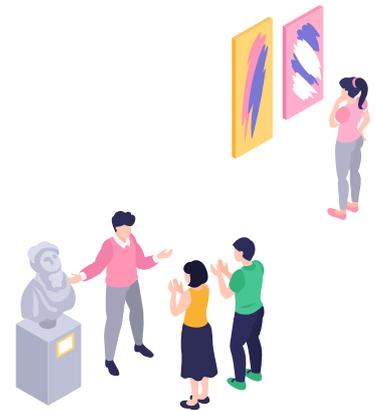
08 서구기록가와 지역읽기

- 심곡천 천천히 걸어보기 _ 서구기록가 고세자

10 함께 떠나볼까요? 서구 박물관 탐험

11 구독자 이벤트

- 서구문화 탐구영역



문화서구 Vol.39

발행처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발행일 | 2023년 7월 17일

발행인 | 정군섭

편집주간 | 서덕현

편집기획 | 임혜선, 노승채, 김시훈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5
(쓰리엠타워 7층)

전화 | 032-582-4341

팩스 | 0502-582-4742

이메일 | isgcc@naver.com

WEB | www.insc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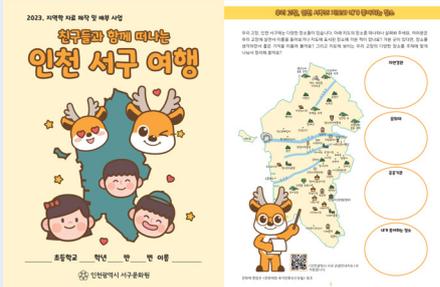
※ 문화서구 간행물의 글, 사진, 기타 자료의
저작권은 인천서구문화원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사 자세히 보기



어린이 지역학 자료집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인천 서구 여행』 발간



인천 서구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 <내 고장 바로알기>와 연계하여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장의 지명 유래, 지도, 설화, 지역의 변화 모습, 문화유산 등을 담은 어린이 지역학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홈페이지(www.inscc.kr) 자료실 - 발간자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서구청춘합창단 갈채 '제10회 전국골든에이지 합창 경연대회'결선 진출



국립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0회 전국골든에이지 합창 경연대회'에서 서구청춘합창단 갈채가 우수한 성적으로 예선을 통과하였습니다. 결선은 오는 7월 20일(목) 13시 30분에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콘서트에서 진행하오니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 지역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쓱쓱 쓱쓱 서구티콘'개강



'쓱쓱 쓱쓱 서구티콘'은 내가 아는 우리 서구, 새로 알게 된 서구를 이야기해보고 이를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이모티콘으로 만들어보는 수업입니다. 수업을 통해 수강생마다 각각의 개성이 담긴 이모티콘을 완성하게 되며 제작된 이모티콘은 추후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2023. 제14회 허암예술제 성료



인천광역시 서구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이 주관한 '허암예술제' 본식이 5월 20일 개최되었습니다. 허암 정희량의 선비정신을 알리고자 열린 이번 축제는 지역의 문화자원과 인물을 알리고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 신현동 회화나무 당제 개최



지난 5월 28일 일요일에 신현동 회화나무 커뮤니티에서 신현동 회화나무 당제가 진행되었습니다. 회화나무 앞 제단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행사 당일 우천으로 부득이하게 제단 근처 회화나무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해 주셔서 민속 행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인천서구문화원 이모저모

인천서구문화원의 새로운 식구를 소개합니다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은주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사업팀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손은주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것 같아 소개를 드리자면 문화예술교육사는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가로서의 역량 및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실행, 문화예술행정, 기획자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서구문화원에 오기 전에는 한국음악을 전공했고 가야금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교성 안녕하세요. 5월부터 지역문화자원팀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 구교성입니다. 저는 현재 곧 진행하게 될 ‘용기전’과 ‘2023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사업에 대한 자료 조사 업무와 문화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준비 보조 업무, 문화원 문의사항 관련 전화 응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문화원과 팀의 첫인상을 알려주세요.

은주 예술가로 살아온 저에게 있어 문화원은 첫 직장이라 걱정도 많이 하고 떨고 있었는데 다들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다정하게 이끌어 주셔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쾌적한 사무실에서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성 처음 문화원에 출근하게 되었을 때, 직원분들이 업무에 열중하고 계셔서 조용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평소 낮을 많이 가리는 성격으로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직원분들과 인턴분들께서 먼저 대화를 걸어주시고, 유쾌한 농담도 해주시면서 유대관계 형성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맛있는 간식과 음료도 많이 챙겨주시고, 아껴주시는 직원분들의 배려로 인해 회사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은주 첫 출근, 첫 명함, 등등 입사 후로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연수에 참여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당시에는 코로나19가 아직 유행하던 시기라 다른 문화예술교육사 선생님들과는 교류가 없었는데 이번 연수로 다양한 전공의 문화예술교육사 선생님들과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성 '옛 서구 마을 상상화 그리기 대회 시상식'준비 업무를 수행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처음 출근하여 맡은 일이자, 보람찬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회 시상식을 준비하면서 직원분들과 함께 소품을 준비하고, 대회 진행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함께 으 으 하는 분위기로 즐겁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시상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시상 받은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웃는 얼굴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화원에서 일하면서 어떤 경험을 해보고 싶나요?

은주 문화예술교육사로 일하면서 재미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고 그 외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모사업에도 지원해보고 싶습니다. 주민들

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교성 서구의 학술 자료 조사를 통해 청라와 현재 매립지 구역 등 인천의 다양한 간척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흥미를 느끼며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현장 답사 업무를 통해 간척지 이전과 현재의 변화 모습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간척지 이전 시절 거주하신 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다짐/각오 한 마디

은주 서서히 스며들어 구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화원을 피우는 원예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성 아직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열심히 배우고, 피드백하며 인턴을 수료하기 전까지 업무 역량을 많이 쌓고 싶습니다. 또한, 문화원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서구 주민의 '울타리 없는 문화놀이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칼럼

서곶옹기,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다.



‘서곶옹기西串甕器’는 190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100여 년 동안 서곶 지역에서 생산되어 주로 경기·수도권에 공급되었다. 서곶옹기는 타 지역 옹기와는 다른 역사와 생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곶옹기는 녹청자의 흠이 서린 곳에서 태동되었고, 재래식 전통 가마와 재래식 생산 방법에서 벗어나 현대식으로 대량생산에 성공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곶옹기는 ‘신일산업(신일토기)’이 2020년 ‘검암역세권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 시점에서 서곶옹기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서곶 지역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자기磁器와 녹청자가 구워지던 지역으로 시천동·경서동·석남동뿐만 아니라 백석동·공촌동에도 가마가 있고 도자기를 구웠다. 특히 고려시대 서곶에서 구워졌던 질 좋은 녹청자는 지방관이나 작은 사찰, 평민들에게 널리 이용되었고, 경기도 여러 지역에서도 서곶 녹청자를 사용했다. 이런 것으로 보아 서곶 지역은 오래전부터 흙을 이용해 생활 용기들이 만들어지던 지역이었고, 생산된 생활 용기들은 해로와 육로를 통해 활발하게 유통되었음이 짐작된다. 때문에 서곶은 곳곳에 그릇을 만들며 살아가는 하층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지역이다. 수백 년 동안 흙을 빚어 불에 구워 녹청자를 생산하던 사람들의 땀방울이 서곶 곳곳에 서려 있다. 그들의 땀방울은 경제적으로 척박했던 서곶을 축축이 적시며 끈끈한 ‘옹기장이공동체’를 만들었다. 녹청자가 왕성하게 구워지던 ‘녹청자도요지’ 바로 옆에서 태동한 ‘서곶옹기’는 녹청자를 구우며 살았던 선조들의 피와 땀이 오랫동안 서곶 땅에서 숙성되어 발현된 축복이다.

일제강점기, 전세戰勢가 불리한 일본은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 한반도에 쇠붙이를 닦치는 대로 공출했다. 이때 쇠를 이용해 만든 솥, 주발, 수저, 낫요강 등 생활 용기들도 무차별적으로 수탈해 갔다. 그 자리를 메운 것이 질그릇이다. 당시

질그릇은 투박하고 깨지기 쉬워 불편했지만 생활 용기로 가장 수요가 많던 상품이었다. 전국 어디서나 질그릇 가마가 만들어지고 물동이, 밥통, 단지, 자배기, 소래기, 시루 등이 생산되었다. 서곶도 이 시점에 옹기 기술이 뛰어난 옹기장들이 흘러들어오면서, 서곶의 무의식 속에 남아 있던 녹청자를 빚고 굽던 정서와 옹기 굽기에 좋은 지리적 조건이 만나 옹기가마에 불이 타오르게 된다.

서곶에서 옹기를 만든 사람들은 서곶 토박이들이 아니다. 외지에서 흘러들어온 옹기장들이었다. 이들은 박해를 피해 산속으로 숨어들어 옹기를 구우며 살아가던 천주교인들의 후손이 대부분이다. 경상도 합천에서, 평안도 의주에서, 황해도 연백에서, 충청도 예산에서, 경기도 김포 등에서 옹기를 굽던 사람들이 서곶으로 흘러 들어와 옹기를 구웠다. 이들이 서곶의 옹기 산업을 일으키고 성장시켜 전국적인 옹기 생산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들의 후손 일부는 비록 서곶을 떠났지만 강화·김포 등에서 도자기와 생활도자기를 빚고 구우며 서곶옹기의 맥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다.

1900년대 초 서곶의 여러 지역에서 소규모로 질그릇이 구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규모를 갖추고 질그릇이 구워지기 시작한 것은, ‘조금석’(1912~1986)과 친구 ‘신현재’(1907~?)가 1938년 ‘아래 점말(경서동 산18번지)에 봉우리가마 한 동을 짓고 질그릇을 굽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서곶의 옹기 산업이 시작되었다. 일제강점기 말 질그릇 수요는 비교적 많았다.

조금석의 질그릇은 1944년 당시 일본의 황민화 정책에 앞장선 친일 단체인 ‘보국단’에 납품할 정도로 품질과 생산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해방 이후 쇠로 만든 생활 용기가 다시 생산되면서 질그릇 수요는 줄어들었다. 그리고 된장·간장·김치 등 우리나라 식문화의 특징인 발효와 숙성에 꼭 필요



시인 · 인천서구문화원 부원장 허문태



옹기 제작 과정



완성된 옹기들



옹기 운반 과정

한 오지항아리 수요가 늘어났다. 이때 서곶도 질그릇 생산에서 오지항아리 생산으로 바뀌게 된다. 오지항아리는 질그릇과 달리 숙련된 기술과 규모가 큰 가마를 필요로 한다. 옹기 기술자가 없는 질그릇 공장들은 대부분 이때 문을 닫게 되었고, 옹기 빚는 기술이 있었던 조금석은 질그릇 가마를 옹기가마로 바꾸고 오지항아리를 굽기 시작한다.

그러나 자리를 잡기도 전에 6·25전쟁이 일어나 서곶 옹기 산업은 위기를 맞았으나, 6·25전쟁으로 인해 깨져 못 쓰게 된 항아리 수요가 크게 늘어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새우젓 독의 수요가 늘어 서곶옹기산업은 빠르게 성장했다. 조금석이 노부리가마(서곶에서 불리던 일종의 봉우리가마)를 정비하여 제대로 된 항아리가 구워질 무렵, 사업 수완이 좋고 열정으로 가득 찬 젊은 최기영(1932~2020)이 1954년 ‘서곶옹기산업’에 뛰어든다. 이후 서곶옹기산업은 최기영과 그가 설립한 ‘신일토기(경서동 4번지)와 운명을 함께 한다. 또한 1961년 사촌누이와 함께 옹기공장을 시작한 안인배(1936~1983)도 1965년 29세의 젊은 나이에 독립하여 ‘서곶토기(경서동 90번지)를 창업하고 ‘신일토기’와 함께 한동안 서곶의 옹기 산업을 이끌었다.

서곶 옹기산업은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다. 70년대 가볍고 견고하며 저렴한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 생활 용기가 생산되면서 찾아온 옹기 산업의 위기와 1980년대 초반의 ‘광명단 사건’이다. 그러나 서곶의 옹기산업은 위기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했다. 서곶의 옹기산업은 재래식 생산방

법을 현대식 생산 방법으로 바꾸어 대량생산과 표준화를 이끌어 냈다. 서곶옹기산업은 날로 발전했고, 수도권 옹기 수요의 60%~70%를 생산 공급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 중심에 ‘신일토기’가 있었고 ‘신일토기’는 전국적인 옹기공장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전성기도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는다. 신소재의 생활 용기가 개발되어 공급되고 식품회사들이 각종 발효식품들을 생산하고 김치냉장고가 나오면서 옹기산업은 사양 산업이 되었다. 그 흐름을 ‘신일토기’도 결국 이겨내지 못했다. 2010년 이후 생산을 중단하다시피 한 ‘신일토기’는 ‘검암역세권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 되어 공장이 멈추었다. 100여년 이어져 오던 “서곶옹기산업”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제 서곶옹기는 흙에서 그릇으로, 그릇에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 순환의 흐름을 묵묵히 따라다 현장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서곶옹기’의 정서는 후손들 무의식 속에 남아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서곶의 녹청자가 그랬듯이 먼 후일 서곶옹기는 다시 서곶에서 새로운 흙의 산업으로 태동하여 한 시대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인천 서구는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가 형성되고 첨단 산업이 자리 잡으며 송파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큰 자치구가 되었다. 이렇게 발전하는데 서곶의 옹기산업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서구민의 삶 속에 자리한 서곶옹기의 문화적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 ‘서곶옹기박물관’의 건립을 제안한다.



심곡천 자전거길에서 라이딩하는 사람들

서구기록가와 지역읽기

심곡천 천천히 걸어보기



서구기록가 고세자

심곡천은 천마산에서 발원해서 복개 구간과 자연 하천구간 해수 구간 등으로 이루어진 천입니다. 아시아드경기장 남편에서 자연 하천구간이 시작되어 루원시티와 연결되는 지점이며, 자이 아파트 앞에서 본격적으로 산책길과 자전거 라이딩 길로 조성되어 인천환경공단 청라 생태공원 앞 바다까지 연결됩니다. 집 앞에 있는 심곡천이라서 10년 전부터 자주 산책도 하고 삼륜 자전거 플로깅도 하고 천변 주변의 풍경도 카메라에 담으면서 즐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10년 전 아시아드경기장 남편 지역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산책할 곳은 되지 못했지만 청라국제도시로 접근하기 쉬운 곳이라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는데 지난해 새롭게

정비해서 이제는 자전거 라이딩도 할 수 있고 징검다리도 만들어져서 새롭게 건축된 LH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산책로가 시작되던 자이 아파트 앞쪽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가정동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유입되어 냄새도 역겨웠고 심곡천 수질도 안 좋았지만 2020년 7월부터 부족한 유수 용수를 조절하기 위해 한강 물을 유입했고 가정동도 루원시티 도시로 개발되면서 생활하수가 정비되어 이제는 마음 놓고 기분 좋은 산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지난해 2022년도에는 봉오대로변 옆 심곡천 남편 쪽으로 미세먼지 차단 숲도 조성해서 아주 쾌적한 곳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심곡천에는 아시아드경기장 남편에서 LH 아파트로, 청라 국제도서관에서 루원시티 방면으로, 자이 아파트 앞에서 루원시티 방면으로 연결되는 세 개의 돌다리 징검다리가 있고 차량 통행이 가능한 샘내들, 청라 국제대로 4거리, 원창교, 심곡1교, 2교, 3교, 4교, 서해교차로, 청라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문점교와 문점1교 총 10개의 다리가 있으며 자전거와 사람만 통행이 가능한 육교 기능 다리가 청라에서 선교중앙감리교회 앞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이 앞의 돌 징검다리는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추억을 남겨주는 정겨운 돌다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곡천 북편방향에서 하류 쪽으로 가다 보면 청라호수공원과 연계되어 있어서 많은 주민이 오후에 가족끼리 친구끼리 많이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천 주변 경사면에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장미, 황화 코스모스, 갈대, 억새, 꽃양귀비 등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꽃이 피고 지고 이름 모를 새들도 많이 드나듭니다. 때를 이루어 심곡천을 오가는 참새떼, 비둘기, 까치, 갈매기, 백로, 왜가리, 청둥오리, 가마우지 등은 날마다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계절에 따라 철새들이 논병아리와 물닭, 비오리, 기러기들이 떼를 지어 심곡천을 오가는 풍경은 누구든 가던 길을 멈추게 합니다.



심곡천 청라방향노을

2021년도에 12월과 1월에는 휴먼시아 앞 풀등 섬에 희귀종 뜰부기가 나타나 전국의 조류탐조가들이 대거 출동하기도 했고 다리에 식별 띠를 두른 천연보호종 노랑부리저어새들이 심심치 않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팔뚝만 한 잉어가 펄떡거리며 헤엄치고 붕어나 미꾸라지 등 갖은 물고기가 있어서 새들의 식량창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귀한 휴식 공간이고 체육 공간이며 낭만 공간인 심곡천의 수질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 준설공사를 하고 수질 흐름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면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 새들을 좋아하는 사람, 걷기를 좋아하고 자전거 라이딩을 좋아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최애의 심곡천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사냥하는 쇠백로



유영하는 흰죽지 가족

함께 떠나볼까요? 서구 박물관 탐험



인천광역시 검단선사박물관



구석기/신석기/청동기 시대의 인천 출토 유물 200여점이 전시되어있는 박물관입니다. 다양한 토기와 반달돌갈을 비롯하여 인천 지역의 선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유물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운영시간 매주 화~일요일 09:00~18:00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121번길 7

© 인천광역시 검단선사박물관



인천서구 녹청자 박물관

사적 211호로 지정된 <인천서구 경서동 녹청자요지>에서 출토된 녹청자를 전시하는 박물관입니다. 옛 토기뿐만 아니라 현대 도예 작품도 감상할 수 있으며 일일 도자기 체험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매주 화~일요일 09:00~18:00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 54

© 인천서구 녹청자 박물관



국립생물자원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생물부터 희귀종까지 다채로운 모습의 생물표본이 전시된 곳입니다. 제주도의 꽃자왈을 모티브로 한 실내 온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생물에 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운영시간 매주 화~일요일 09:30~17:30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 국립생물자원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항공, 해양 특성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총 8개의 안전 체험을 경험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CPR을 비롯하여 소화기 사용법, 완강기 사용법 등 위급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교육 체험이 가능한 곳입니다.

운영시간 매주 화~일요일 09:00~18:00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1로 120

© 인천국민안전체험관



event

2023년도 7월

서구문화 탐구영역

성명	서동이	수험번호	2	0	2	3	-	0	7	1	7
----	-----	------	---	---	---	---	---	---	---	---	---

1. 다음 중 인천서구문화원의 지난 행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0점]

- ① 회화나무 당제 개최
- ② 허암예술제 본식 진행
- ③ 갈채 '골든에이지' 예선 통과
- ④ '씩씩 씩씩 서구티콘' 개강
- ⑤ 서구문화원 20주년 기념식

2. 신규 사원인 '손은주' 인턴의 부서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10점]

- ① 경영기획팀
- ② 지역문화자원팀
- ③ 향토문화연구소
- ④ 문화예술사업팀
- ⑤ 총무회계팀

3. 서곶 옹기 산업의 위기를 초래한 사건의 이름을 고르시오. [30점]

- ① 광명단 사건
- ② 노부리가마 사건
- ③ 보국단 사건
- ④ 황민화 정책
- ⑤ 녹청자 도요지 발견

4. 서구기록가가 참여하는 문화서구 페이지의 제목을 고르시오. [30점]

- ① 서구기록가와 지역탐방
- ② 서구기록가와 지역읽기
- ③ 서구기록가의 지역일기
- ④ 서구기록가의 지역기록일지
- ⑤ 서구기록가와 지역한바퀴

5. 다음 중 '녹청자 박물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20점]

- ① 일일 도자기 체험을 운영한다.
- ② 경서동 녹청자 요지에서 출토한 것을 전시한다.
- ③ 옛 토기들만 감상할 수 있다.
- ④ 매주 월요일 휴관일이다.
- ⑤ 서구 도요지로 54에 위치한다.

· 독자 이벤트 참여방법 ·

참여해주신 분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참여방법 아래에 구글폼 링크 접속 → 퀴즈 정답풀이 → 제출

마 감 2023년 7월 31일

발 표 2023년 8월중 개별안내

당첨인원 10명

문의 의 경영기획팀 070-4681-7275



전시로 보는 인천 서구 지역학

서순이의 방학숙제

따르릉!

2060년 미래의 서순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인천 서구의 과거를 찾아서
서순이의 방학숙제를 도와줄까요?

첫 번째!

전시장에 있는
인천 서구의 사진을 보며
서순이의 방학숙제를
풀어보아요!

두 번째!

방학숙제를 풀며
미래의 우리 동네에
대해 서순이에게
물어볼까요?

세 번째!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에 어떤 풍경과
건물이 있을지 함께
만들어 전시해보아요.



- 일 정 2023.07.17. (월) ~ 07.21. (금) 13:00 ~ 21:00
2023.07.22. (토) 09:00 ~ 18:00
- 대 상 서구민 누구나
- 장 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센터 서구 1939
- 관람료 전액 무료
- 문 의 인천서구문화원 경영기획팀 070-8217-0245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찾아오시는 길

인천 서구 염곡로464번길 15, 가정 쓰리엠타워 7층



지하철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정역
4번 출구에서 417m (도보10분)



버스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하차
간선 버스: 1, 202, 3-2, 42, 46
가정역 하차
간선 버스: 12, 13, 2-1, 202
지선 버스: 584, 591-1
광역 버스: 1000, 9300



문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032-582-4341

NAVER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검색창에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을 검색해보세요!

문화예술행사, 지역 정보, 운영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상품 이벤트

참여방법 아래에 구글폼 링크 접속 → 11p 퀴즈 정답풀이 → 제출
 마감 2023년 7월 31일
 발표 2023년 8월중 개별안내
 당첨인원 10명
 문의 경영기획팀 070-4681-7275

